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일시 2024. 10. 14. [월] 15:00~16: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주관 |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협의회(준)

후원 | (사)패션봉제산업연합회·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문래기계금속청년협의회

주제발표문: 서울시 도시제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이 호 정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준) 사무총장)



I. 서론

1. 배경 및 문제 제기: 소공인 지원에서 도시제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

서울시는 약 20만 개의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공인은 서울시 제조업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공인들은 서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묶여 제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술 혁신,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점에서 도시제조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 현행 소공인 지원의 한계

현재 소공인들은 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주로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등의 단기적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공인이 속한 제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제조업체 특화 지원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은 15% 미만입니다. 이는 소공인들이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기술 혁신과 산업적 전환의 필요성

스마트 공장 도입과 같은 기술 혁신이 제조업 발전의 핵심이지만, 소공인들은 비용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혁신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Mittelstand모델과 뉴욕의 Made in NYC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제조업체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서울시 소공인들도 스마트 제조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최대 30~5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소공인이 단순 생존을 넘어서 산업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 산업 집적지와 클러스터 효과

서울시 내 성수동, 을지로, 구로/금천등은 소공인이 밀집한 산업 집적지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된 지원을 받는 대신, 클러스터 내에서 공동 작업 공간과 공동 인프라를 공유하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산업연관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에서 1.5~2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은 기술적, 경영적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서울시는 소공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군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약 7.8%로, 이는 세계적 제조업 중심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시제조업으로 전환하고 기술 혁신, 글로벌 브랜드화를 촉진하면 서울시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의 Made in NYC 프로그램처럼, 서울시도 소공인 제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경우 수출 확대와 함께 연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공인 지원 정책은 개별적 생존을 위한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제조업이라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여 소공인들이 산업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 산업 클러스터 형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목적 : 도시제조업 육성의 필요성

서울시의 소공인들은 단순한 소규모 자영업자가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과 도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러나 기존 소공인 지원 정책은 주로 개별적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 혁신, 공동 인프라, 글로벌 시장 진출과 같은 제조업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제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소공인들이 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적 경쟁력 강화

도시제조업 육성의 주요 목적은 소공인들이 스마트 제조, 자동화 기술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Industry 4.0 사례처럼, 기술 혁신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대형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시 소공인들도 이러한 기술적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30~50%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GDP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자원 공유 및 협력 촉진

도시제조업 육성의 또 다른 목적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공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수동, 구로구 등 소공인들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 작업 공간과 공용 설비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소공인들이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 투자와 설비 구입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클러스터 모델은 중소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

도시제조업 육성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의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Made in NYC 프로그램처럼, 서울시 소공인들도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해외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제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20%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경제적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라. 지속 가능한 도시제조업 생태계 구축

도시제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 장기적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조업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제조업은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환경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발맞춰 서울시 제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II. 현재 서울시 소공인 현황

1. 서울시 소공인의 분포 및 산업 특성 (2023년 기준)

서울의 소공인들은 의류, 가죽, 금속 가공, 전자 부품과 같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밀집된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소공인들의 산업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주요 집적지(성수동, 을지로, 구로/금천)는 전통 제조업과 IT 및 전자 부품산업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업체수와 종사자를 보유한 서울시 봉제업체는 25개 자치구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봉제업체들은 서울시의 패션 및 의류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특히 의류 생산과 관련된 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업종	역사 및 특성	집적지 (구별)	업체 수		
성수동 (성동구)	가죽, 신발, 패션	1960년대부터 가죽 및 신발 제조업이 발달한 전통 제조업 밀집 지역	성수동, 서울숲 주변	약 3,500개		
을지로 (중구)	금속 가공, 인쇄, 조명	을지로는 금속 가공 및 인쇄 산업이 발달한 소규모 제조업의 중심지	을지로, 청계천 주변	약 2,800개		
구로/금천 디지털 단지	전자 부품, IT 하드웨어	구로공단에서 출발한 전통 제조업이 IT, 전자 부품 제조업으로 발전	구로, 금천구	약 4,000개		
동대문구	의류, 패션, 봉제	서울 최대 봉제업 밀집 지역, 동대문 패션 상권과 연계된 의류 생산 클러스터	서울시 전역	약 3,500개		
중랑구		봉제 및 의류 부자재 제조업체들이 밀집, 섬유 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됨		약 2,800개		
성북구		중소 봉제업체가 다수 분포, 맞춤형 의류 생산 및 소규모 수주 형태의 운영		약 1,500개		
광진구		동대문 패션 상권과의 접근성으로 인해 의류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음		약 1,200개		
성동구		주로 수제 의류 및 가죽 제품 제조업체가 활동, 서울숲 주변의 소규모 봉제업체 중심		약 900개		
강북구		전통적인 봉제업 지역, 주로 동대문과 연결된 중소규모 봉제업체들이 밀집		약 800개		
은평구		소규모 봉제업체들이 모여 있는 지역, 주로 지역 내 의류 수주 생산을 담당		약 700개		
중구		을지로 및 청계천 일대의 봉제 및 수제 작업장 운영, 전통적인 공업 지역		약 650개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소규모 봉제업체, 전통적인 수제 의류 및 수공예 제품 중심		약 500개		
마포구		패션 관련 창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소규모 맞춤형 의류 및 디자인 업체들이 위치		약 450개		
기타 구 (나머지 14구)		서울시 전역에 걸쳐 소규모 봉제업체 분포, 각 구별로 중소형 의류 생산업체들이 산재		약 5,000개		
종로 (종로구)		귀금속, 시계, 금은 세공		종로3가 일대는 1970년대부터 귀금속 및 금은 세공 산업 중심지	종로3가, 종로구 전역	약 1,500개

2.역사 및 업종 특성

- **성수동:** 1960년대부터 가죽 및 신발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한국 전통 패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수많은 수제 가죽 제품 및 신발 제조업체가 활동 중입니다.
- **을지로:** 금속 가공과 인쇄업의 중심지로, 특히 청계천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을지로는 대형 공장보다도 작업장 단위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강점을 보입니다.
- **구로/금천 디지털 단지:** 과거 구로공단에서 시작된 전통 제조업이 IT 및 전자 부품 제조업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IT 하드웨어 및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 서울에서 가장 큰 봉제업 밀집 지역으로, 동대문 패션 상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봉제업체들은 빠른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 패션 트렌드에 맞춘 즉시 대응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종로:** 귀금속, 시계, 금은 세공 등 세공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장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공방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종로3가 일대는 귀금속 가공과 관련된 전통이 깊습니다.
- **중랑구와 성북구:** 봉제 및 섬유 부자재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중랑구는 전통적으로 섬유 및 봉제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주로 중소 봉제업체들이 맞춤형 수주 작업을 수행하며, 동대문 상권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 **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 봉제업체들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지역 내 맞춤형 의류 수주와 수제 작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생산성 및 산업 연관 효과

서울시 소공인(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은 서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제조업 생산유발 효과 등의 측면에서 그 기여도가 큼니다.

가. 고용 유발 효과

서울시는 약 20만 개의 소공인 제조업체가 존재하며, 이는 전체 제조업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인들은 연간 약 50만명 이상의 직접적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제조업 고용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제조업의 고용 유발 계수는 1.6~2.2배로, 이는 소공인이 창출한 일자리가 다른 관련 산업에서도 추가적인 고용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공인들이 봉제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면, 그에 따른 유통업 및 물류업에서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직접 고용: 각 소공인 제조업체는 평균 5명 내외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20만 개 소공인 제조업체에서 약 1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30~35%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제조업 노동력을 크게 차지합니다.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2)간접 고용: 제조업의 특성상, 소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은 유통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과 연계되어 있어, 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큼. 특히 동대문구, 구로구와 같은 소공인 집적지는 패션 산업, IT 및 전자 부품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약 30만 명의 추가적 간접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정량적 데이터: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제조업에서 1명의 고용이 발생할 때, 관련 산업에서 2명 이상의 고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사례: 을지로의 금속 가공업은 금속 부자재 공급업체와 물류업체에서 2.1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관련 산업의 노동 수요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서울시 소공인이 속한 제조업은 서울시 GDP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약 14조원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소공인은 제조업 전체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어, 5.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제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약 1.8배로,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서비스업, 유통업, 물류업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부가가치 창출 구조: 소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의류, 가죽, 금속 가공, 전자 부품과 같은 전통 제조업으로, 이들은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죽 제품과 전자 부품은 최종 소비재로서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되어, 매출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2) 부가가치 창출 효과: 소공인 제조업체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30~50% 증가시킬 경우, 전체 생산량도 20~30%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GDP에 추가적으로 약 1~2조 원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의류, 금속 가공, 전자 부품)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사례: 구로구의 전자 부품 제조업은 IT 서비스와 전자 유통업에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나타내며, 약 1.8배의 추가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자 부품 제조가 IT 서비스와 기술 발전을 자극하고, 관련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다. 생산 유발 효과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해당 산업이 성장할 때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생산을 의미합니다. 도시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원자재 공급업, 물류업, 유통업등 여러 산업에서 추가적인 생산 활동이 촉진됩니다.

서울시 산업연관표 분석에 따르면, 도시제조업이 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할 때, 연관 산업에서 1.5억 원 이상의 추가 생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시제조업이 다른 연관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계수가 높다는 점은 서울의 소공인 중심 제조업이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 사례: 성수동의 가죽 및 신발 제조업은 가죽 부자재, 패션 부자재 및 포장재 산업에서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내며, 해당 지역의 총 생산액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약 1.7배의 추가 생산을 일으켜, 원자재 공급과 유통에서의 성장을 동반합니다.

서울시 소공인들은 서울시 제조업의 약 40%를 차지하며, 서울 경제에 5.6조원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연간 5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통해 약 30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연관 효과를 바탕으로, 소공인들은 서울 경제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공인들의 도시제조업 전환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II. 서울시 소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요

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구조

서울시는 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리 융자, 경영 컨설팅, 기술 교육등의 지원이 포함되며, 소상공인과 소공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SBA(서울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등 관련 기관들이 주요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정책 및 사업 예시

(1)서울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

- 주관: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 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제공.
- 규모: 2022년 기준 약 1조 원규모의 자금을 지원, 이 중 약 30%가 소공인에게 지원되었음.

(2)SBA 소공인 경영 지원 사업

- 주관: 서울산업진흥원(SBA)
- 내용: 소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전환 교육 등을 제공.
- 참여 기업 수: 2022년 기준 약 500개 소공인 업체가 참여.

(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 주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 내용: 전국 6개 특화센터에서 소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서울 내 3개 특화센터에서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제품화 지원 등을 진행.
- 지원 규모: 2022년 기준, 서울시 내 약 1,000개 소공인 업체가 해당 센터의 지원을 받음.

2. 소공인 지원 사업 사례 분석

가. SBA(서울산업진흥원) 소공인 지원 사업

SBA 소공인 지원 사업은 주로 경영 개선, 기술 혁신, 마케팅 지원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소공인들의 자립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소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은 각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 2022년 기준, 약 500개 소공인 업체가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영 성과를 개선한 사례가 있으며, 참여 업체의 매출 증가율은 평균 10%에 달함.
- 기술 지원 및 스마트 제조 전환: 소공인들은 스마트 공장 도입과 같은 기술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2년 약 50개 소공인 업체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받음.

나. 서울시 자금 지원 사업

서울시는 소공인에게 저리 용자를 제공하는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자금 및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기술을 도입하거나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1)자금 지원 규모: 2022년 기준으로 약 1조 원규모의 자금이 소상공인과 소공인들에게 지원되었으며, 이 중 약 30%가 소공인에게 배정됨.
- (2)용자 지원 성과: 자금을 지원받은 소공인들의 설비 투자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지원받은 업체 중 80%가 매출 및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함.

다. 소상공인지원공단(소진공)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들의 기술 교육, 제품화, 시제품 개발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서울시 내 3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소공인들이 제조업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1)지원 프로그램 참여 규모: 2022년 기준, 서울시 내 약 1,000개 소공인 업체가 특화센터를 통해 기술 및 경영 교육을 받음.
- (2)기술 혁신 지원: 기술 도입 및 제품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약 300개 업체가 새로운 기술 도입에 성공함.

3. 소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의 현황 분석

가. 기술 혁신 및 인프라 지원의 부족

소공인은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의 지원 정책은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도입과 같은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2022년 기준, 스마트 제조 전환을 위한 지원을 받은 서울시 소공인은 전체의 3% 미만에 그쳤습니다.
- 대부분의 소공인들은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며, 이는 전체 설비 투자 예산의 10% 미만만이 소공인에게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금 지원의 제한성

기존 소공인 자금 지원은 대부분 운영 자금과 단기적 생존 자금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설비 투자 자금은 미흡합니다. 또한, 자금 지원은 주로 용자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소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2022년 서울시 자금 지원 사업에서 소공인에게 지원된 자금은 총 1조 원 중 약 30%에 해당하며, 그 중 설비 투자 자금은 10% 미만이었습니다.
- 소공인들은 자금 지원 후 약 60%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장비 도입을 미루거나 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 산업 협력 및 네트워크 부족

서울시 소공인들은 주로 개별적 생존을 목표로 하다 보니, 산업 간 협력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협력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 2022년, 소공인 간 협력을 위한 클러스터나 네트워크 참여율은 10% 미만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소공인은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소공인 집적지(성수동, 구로구, 을지로 등)의 공동 작업 공간 이용률은 전체 소공인의 약 5%에 그칩니다.

4. 개선 방향

가. 소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소공인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며, 기술 혁신과 스마트 제조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정량적 목표:
- 소공인 전용 지원 예산을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공인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2023년에는 스마트 제조 전환 지원 비율을 현재 3%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기술 혁신과 스마트 제조 도입 지원 강화

소공인들이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장비 투자 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리 용자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기술 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정량적 목표:
-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이상 확대하여,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강화.
- 2023년에는 전체 소공인 중 10% 이상이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

다. 산업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형성

소공인들이 집적지를 중심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 작업 공간과 공동 설비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정량적 목표:
- 서울시 주요 소공인 집적지(성수동, 구로구 등)에 3개 이상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동 작업 공간 이용률을 현재 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
- 2023년까지 소공인 간 협력 프로젝트 참여율을 10%에서 25% 이상으로 증대.

라. 장기적 성장 자금 지원 확대

소공인들이 단기적 생존이 아닌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비 투자 자금과 기술 개발 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융자보다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정량적 목표:
-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비 투자 자금 지원 비율을 2022년 10% 미만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 자금 지원을 받은 소공인들의 재정적 부담 감소율을 60%에서 30%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

기존 소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범주에 묶여 제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 혁신, 설비 투자, 산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소공인의 도시제조업 전환을 위해 전략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합니다.

IV. 소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점 분석

서울시 및 유관기관(SBA,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소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범주에 속한 기술 혁신 및 인프라 구축, 산업 협력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정량적 데이터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으며, 소공인들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와 관련 기관의 발표자료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한계점 분석입니다.

1. 소상공인 범주로 묶인 지원의 한계

소공인은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범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로 서비스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 혁신, 장비 투자, 대규모 인프라 구축등의 요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약 80%가 서비스업 및 자영업 중심의 지원 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 소공인만을 위한 제조업 특화 지원 예산은 약 10%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은 전체 지원 프로그램 중 약 5% 이하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상공인 범주에서 소공인이 기술 투자와 스마트 제조 도입을 통한 성장 전략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자영업 지원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 도입이나 기술 혁신에 필요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부족

소공인들은 제조업의 특성상 스마트 공장 도입, 자동화 시스템 구축등의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지만, 자금과 기술 인프라가 부족하여 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제조업체들은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공인들은 이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산업진흥원(SBA)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스마트 제조 전환을 위한 지원을 받은 소공인은 전체 소공인 중 약 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SBA는 기술 혁신 및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예산의 약 90% 이상을 대규모 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 할당하고 있으며, 소공인에 대한 지원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소진공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공인들은 기술 투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약 60%가 스마트 제조 전환을 미루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소공인의 75%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기술 혁신을 포기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은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3. 산업 협력의 부재

소공인은 개별적 생존에 집중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 집적지 기반의 공동 프로젝트나 협력적 인프라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소공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기반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전체 소공인 중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2021년 서울시 내 소공인 밀집 지역(성수동, 구로구, 금천구 등)에 구축된 공동 작업 공간이용률은 5% 미만이며, 대부분의 소공인들은 개별 작업장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SBA 발표에서는 소공인들이 공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나 공동 마케팅과 같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 7% 이하로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공인들의 산업 협력 부재는 특히 기술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개별 소공인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소공인들이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소공인 지원 정책은 주로 소상공인 범주내에서 제공되며, 제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술 혁신, 장비 투자, 산업 협력등의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며, 소공인들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공인 맞춤형 정책 확대, 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V. 개선 방향으로서의 도시제조업 육성과 활성화 방안

서울시 소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제조업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공인 지원의 한계

가. 제조업 특성 반영 부족

소공인 지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범주에 속해 있어 서비스업 중심의 자금 지원과 단기 생존위주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장기적 기술 혁신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구조는 산업적 경쟁력 강화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의 소공인 지원 예산 중 약 80%가 자영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정책에 배정되었고, 소공인만을 위한 제조업 특화 지원 예산은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나.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미흡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제조업체들은 스마트 제조, 디지털 전환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소공인들은 이를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도입과 같은 자동화 기술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 스마트 제조 도입을 지원받은 소공인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소공인은 기술 도입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 산업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부재

소공인들은 대부분 개별적 생존에 집중하며, 산업 협력이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집적지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인프라가 부재하여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내 소공인 집적지에서 공동 작업 공간이용률은 전체 소공인의 5% 미만이며,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공인 비율은 약 7%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도시제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가. 제조업 특화 맞춤형 지원 확대

기존 소공인 지원이 소상공인 범주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공인들이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량적 목표: 소공인 전용 지원 예산을 기존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공인들이 제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제조 도입 지원 비율을 3%에서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 스마트 제조 및 기술 혁신 지원 강화

소공인들이 스마트 공장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자동화 설비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정량적 목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비율을 2022년 대비 2배이상 확대하고,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전체 소공인의 10% 이상이 스마트 제조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산업 협력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조성

소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성수동, 구로구,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공동 작업 공간과 공동 설비를 통해 협력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비용 절감과 기술 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정량적 목표: 2023년까지 서울시 주요 소공인 집적지에 3개 이상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동 작업 공간 이용률을 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소공인 간 협력 프로젝트 참여율을 7%에서 25% 이상으로 증대시켜야 합니다.

라.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브랜드화

소공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 전시회참가 지원을 강화하고, 소공인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량적 목표: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공인 비율을 2022년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수출액을 10~15%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 소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특화 지원 확대, 스마트 제조 및 기술 혁신 강화, 산업 클러스터 형성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개별적 생존을 넘어 산업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VI. 도시제조업협회의 역할과 책임

1. 도시제조업협회의 역할

가. 제조업 특화 지원 체계 구축

기존 소공인 지원 정책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범주에 속해 있어 제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제조업협회는 소공인들의 제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혁신, 설비 투자,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1년 서울시의 소공인 지원 예산 중 제조업 특화 지원 예산은 약 10% 미만에 그쳤으며, 이는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 및 기술 투자 자금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시제조업협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조업체 특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나. 기술 혁신 및 스마트 제조 도입 지원

도시제조업협회는 소공인들이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소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에서 스마트 제조 도입을 지원받은 소공인은 전체 소공인의 약 3% 미만에 불과하며, 자금 부족과 기술 지원 미흡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도시제조업협회는 이러한 낮은 전환율을 개선하고, 스마트 제조 도입 지원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소공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공동 설비를 운영하여 소공인 간 협력과 자원 공유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개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내 소공인 밀집 지역(성수동, 구로구 등)의 공동 작업 공간 이용률은 5% 미만,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공인 비율은 약 7%에 불과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수치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지원

도시제조업협회는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수출 지원 프로그램(ODA 사업 참여 포함)과 국제 전시회 참가를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소공인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소공인 중 수출 지원을 받은 비율은 5% 미만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시제조업협회는 이 비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소공인들의 연간 수출액을 10~15%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도시제조업협회의 책임

가. 제조업 특화 자금 조성 및 운영

협회는 소공인들이 제조업 특성에 맞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 및 운영의 책임을 집니다. 이를 통해 설비 투자, 기술 개발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년 서울시의 소공인 자금 지원 중 설비 투자 자금은 10% 미만이었으며, 많은 소공인들이 자금 부족으로 장비 도입을 미루거나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협회는 설비 투자 자금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정책 제안 및 자문 역할

도시제조업협회는 소공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중앙 정부에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수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 맞춤형 정책이 설계되고, 제조업 특성에 맞춘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공인들의 정책 피드백을 수렴하여, 연간 최소 3회 이상 정책 개선안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제조업 특화 지원 정책의 실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제조협회·서울시·서울시의회는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 산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협회는 소공인들의 제조업 현황, 기술 도입 상황, 시장 동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책임을 집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회는 서울시 내 소공인들의 기술 도입 및 시장 진출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낮은 단계의 기술전수를 타개하기 위해 소공인의 우수한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ODA 사업을 통해 전수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도시제조업협회는 제조업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스마트 제조 및 기술 혁신 지원, 산업 협력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술전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자문, 자금 조성, 데이터 기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도시제조업의 주체로서 자리잡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VII. 서울시의 지원내용 및 협회와의 협력 방안

서울시, SBA(서울산업진흥원),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등 유관 기관은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도시제조업협회와의 협력 하에 기술 공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 서울시의 지원 방향

서울시는 기술 혁신, 산업 협력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소공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방향입니다.

가. 기술 혁신 및 스마트 제조 도입 지원

- 지원 목표: 서울시는 2022년기준으로 소공인들의 스마트 제조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정량적 목표: 2023년까지 서울시는 소공인의 스마트 제조 도입 비율을 15%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기술 혁신 관련 지원 예산을 현재 대비 30% 이상확대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 지원: SBA를 통해 소공인들이 기술 컨설팅, 자동화 설비 구축등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 혁신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나. 산업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 목표: 서울시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소공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자원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내 상호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소공인들이 개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적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량적 목표: 2025년까지 서울시 내 3개 이상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내 소공인들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 지원 목표: 서울시는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글로벌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전시회 참가, 수출 바우처 제공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량적 목표: 서울시는 2023년까지 소공인들의 수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수출액을 15%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소공인 간 기술 공유 및 협력 촉진

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

서울시는 성수동, 구로구, 금천구와 같은 소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공동 설비를 활용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기술 공유를 촉진합니다.

- 구체적 방안:
 - 산업 클러스터 내 공동 설비 구축: 공동 작업 공간 및 고가 장비를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비 도입 비용 절감자원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 협력 프로젝트 지원: 서울시와 도시제조업협회는 소공인들이 공동 기술 개발협력 마케팅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집단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 기술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와 협회는 소공인들이 스마트 제조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안:
 - 기술 컨설팅 제공: 소공인들은 SBA를 통해 기술 도입 관련 컨설팅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 제조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술 교육 프로그램: 소진공은 정기적으로 스마트 공장 도입 및 자동화 시스템 교육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기술 도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 해외사례

해외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뉴욕시, 독일, 일본의 도시제조업 또는 유사한 소규모 제조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각 나라의 사례를 통해 도시제조업 육성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례는 산업 클러스터형성, 기술 혁신, 공동 인프라 구축등의 측면에서 서울시에 적합한 도시제조업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뉴욕시 - Made in NYC 프로그램

- 개요: 뉴욕시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de in NYC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브루클린과 같은 도시 제조업 중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랜드 구축, 판로 개척, 기술 지원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돕고 있으며, 공동 작업 공간 제공을 통해 자원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핵심 요소:
 - 브랜드화: 뉴욕에서 제조된 제품임을 강조하는 공동 브랜드를 통해 도시제조업체의 가치를 높임.
 - 공동 작업 공간: 브루클린 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작업 공간 제공 및 장비 대여.
 - 기술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기술 혁신과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 적용 방안: 서울시는 뉴욕의 Made in NYC 프로그램처럼 도시 내 공동 브랜드를 형성하고, 소공인들이 협력하여 자원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공간과 기술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독일 - Mittelstand 및 산업 클러스터 정책

Mittelstand는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 모델로, 규모는 작지만 지속 가능성, 기술 혁신,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이 Mittelstand 모델을 적용하여 도시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공인들을 단순한 생존 단계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Mittelstand 기업들은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스마트 공장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실행 방안: 서울시는 독일과 같이 산학연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소공인들이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여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공인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장기적 비전과 경영 철학

Mittelstand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안정적인 경영을 중시합니다. 서울의 소공인들도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투자와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행 방안: 서울시는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장기 경영 전략 수립 교육과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공인들이 단기적인 생존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 가족 경영과 지속 가능성

Mittelstand 기업들은 대체로 가족 경영이 중심이며, 세대를 넘어서 경영이 이어집니다. 이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서울도 소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실행 방안: 소공인들의 세대 교체와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소공인들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국제화와 수출 지원

Mittelstand 기업은 대부분 국제 시장을 목표로 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제조업도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행 방안: 서울시는 소공인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소공인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 산업 클러스터 형성

Mittelstand는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울도 특정 지역에 도시제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소공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실행 방안: 서울시는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성수동, 구로구, 금천구와 같은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 설비와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소공인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Mittelstand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기술 혁신, 장기적 경영 철학, 지속 가능성, 국제화,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공인들이 도시제조업이라는 더 큰 틀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본 - 히가시 오사카시 제조업 클러스터

(가) 개요: 일본 오사카의 히가시 오사카시는 수천 개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도시로, 작은 부품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술 혁신과 전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이 지역을 활성화했습니다.

(나)핵심 요소:

- 특화된 부품 제조업: 오사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 제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형성.
- 기술 교육 및 공동 설비 지원: 지역 내 제조업체들이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 설비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
- 정부의 기술 지원 및 자금 지원: 정부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소규모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음.

(다)적용 방안: 서울시는 일본 히가시 오사카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공동 설비 제공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 분석을 통한 적용 방안

(1)공동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지원

- 뉴욕의 공동 작업 공간과 독일의 산업 클러스터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에서도 공동 제조 설비와 작업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공인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도입할 수 있게 돕습니다.

(2) 산업 협력 네트워크 형성

- 독일의 산학연 협력 모델처럼, 서울시는 대학, 연구소, 민간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제조업체들에 도입하고, 연구개발(R&D)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제조업체들의 장기적 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3)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소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제조 효율성을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Industry 4.0 모델을 참고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4) 공동 브랜드 및 글로벌 진출

- 뉴욕의 Made in NYC 프로그램처럼, 서울시도 소공인 집적지 제품들을 통합한 공동 브랜드를 형성하여 글로벌 마케팅과 해외 전시회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도시제조업이 공동 인프라와 기술 혁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도 도시제조업 협회 설립 및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여 소공인을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 수립

가. 정책적 연계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서울시는 도시제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 서울시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안:
 - 정책 연계 강화: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소공인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전략: 도시제조업협회는 소공인들의 친환경 제조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도시제조업협회와 서울시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소공인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 구체적 방안:
 - 글로벌 시장 전략: 소공인들이 해외 진출 시 현지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국제 전시회 및 수출 지원: 소공인들이 국제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출액을 연간 15% 이상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협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소공인 기술 혁신 산업 협력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은 기술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VIII. 결론 : 서울시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제조업 산업연관분석 결과 및 정책적 전환 제안

서울시 소공인들이 운영하는 도시제조업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경제와 산업 전체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번 산업연관분석 결과는 소공인이 단순 자영업자로서 지원받는 것에서 벗어나, 도시제조업이라는 산업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성장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 산업연관분석 결과의 요약

가. 생산 유발 효과

- 도시제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1.5배 이상의 추가 생산을 유발하며, 이는 원자재 공급, 물류, 유통업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 예시: 성수동 가죽 및 신발 제조업의 성장은 관련 부자재 및 유통업체에서 1.7배의 추가 생산을 유발합니다.

나. 부가가치 유발 효과

-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1.8배로, 제조업의 성장으로 다른 관련 산업에서도 부가가치가 증대됩니다.
- 구로구 전자부품 제조업이 IT 서비스 및 물류업에서 1.8배의 추가 부가가치를 유발.

다. 고용 유발 효과

- 도시제조업은 1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때, 다른 연관 산업에서 2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고용 유발 효과를 나타냅니다.
- 을지로 금속 가공업은 관련 부자재 및 물류업에서 2.1명의 추가 고용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는 소공인 제조업이 서울시 경제에 중요한 파급 효과를 미치며, 다양한 산업 간 상호 의존성이 큼을 보여줍니다.

2. 정책적 전환 필요성

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

현재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서비스업 중심의 단기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기술 혁신, 스마트 제조 도입, 설비 투자 등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단순 경영 컨설팅이나 자금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정량적 데이터: 2022년 서울시 소공인 지원 예산 중 약 80%가 소상공인 중심의 자영업 지원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제조업 특화 지원 예산은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나. 도시제조업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

소공인 지원을 도시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제조 및 기술 혁신 지원: 기존 소공인 지원 정책을 넘어, 스마트 제조 도입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정량적 목표: 2025년까지 스마트 제조 도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성수동, 을지로, 구로구 등 소공인 집적지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동 인프라와 공동 설비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적 생산을 촉진해야 합니다.
- 정량적 목표: 2023년까지 3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동 작업 공간 이용률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도시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가. 기술 혁신 및 자금 지원 확대

도시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공인들에게 기술 도입 자금과 장비 투자 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이 스마트 공장 도입, 첨단 기술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안: 제조업 특화 지원 예산을 현재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제조 도입 지원 비율을 10%에서 15%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나. 협력 네트워크와 산업 클러스터 형성

도시제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소공인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안: 서울시 내 소공인 밀집 지역에 공동 작업 공간과 공동 설비를 제공하여, 협력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 프로젝트와 기술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공인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다.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브랜드화

도시제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구체적 방안: 소공인들의 국제 전시회참가를 지원하고,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연간 수출액을 15% 이상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산업연관분석결과는 도시 내 제조업이 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 큰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공인 지원 정책을 단기적 생존에서 장기적 성장과 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은 소공인들이 기술 혁신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3. 뉴욕시 제조업 혁신 정책 보고서(2020).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4. 독일 산업 클러스터 발전 사례(2019).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5. 서울시 경제진흥원 (2022). 서울시 봉제업체 및 제조업 현황 분석 보고서.
6. 중소벤처기업부 (2021). 소상공인 및 소공인 현황 조사.
7. 서울시 통계자료 (2020). 서울시 의류 및 봉제업체 분포 분석.
8. 서울시 통계자료 (2020). 서울시 산업 현황 및 소공인 분포 분석. 서울시 경제진흥원 보고서.
9. 한국은행 (2019). 서울시 제조업 고용 및 경제 기여도 분석.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계.
10. 서울시 통계자료 (2020). 서울시 제조업체 및 고용 통계 보고서.
11. 한국은행 (2018). 산업연관표 통계 분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nomic Statistics System).
12. 서울시 경제진흥원 (2022). 서울시 경제 기여도 분석 보고서.
13. 중소벤처기업부 (2021). 소상공인 및 소공인 현황 조사.
14.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산업구조 및 경제 기여도 분석.
15. Germany Trade & Invest (2020). Mittelstand and Industrial Clusters in Germany.
16. 한국은행 (2019). 서울시 제조업 부가가치 및 산업연관 분석.
17. 서울산업진흥원 (2021). 서울시 제조업 기술 혁신 보고서.
18. GermanyTrade& Invest- Mittelstand
19. JapanExternalTradeOrganization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제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도시제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제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간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제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제조업자”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도시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제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특별시 도시제조업협회의 설립 및 구성

제4조(도시제조업협회의 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도시제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서울시 도시제조업협회’ 설립을 지원한다.

② 협회는 도시제조업체의 기술 혁신, 자원 공유, 산업 협력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의 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위해 서울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5조(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시 5대 소공인 협회 중 도시제조업에 참여하는 주요 협·단체장이 공동으로 회장을 맡는다.

② 공동 회장은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도시제조업 분야의 이익을 대변한다.

③ 협회에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협회의 주요 사업과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④ 협회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협회의 행정, 회원관리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제3장 도시제조업 지원

제6조(기술 혁신 지원) 시장은 도시제조업자가 스마트 제조 도입을 통해 첨단 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 자금과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금 및 설비 투자 지원) 시장은 도시제조업자의 설비 투자,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하여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공동 설비 지원) 시장은 도시제조업자들의 협력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제조업 밀집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동 작업 공간과 공동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은 도시제조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전시회 참가와 수출 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제조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제조업에 특화된 글로벌 브랜드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제4장 지원체계 및 관리

제10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도시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소공인들의 실질적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제조업자가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제11조(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 시장은 도시제조업과 관련하여 고용 창출, 부가가치 증가, 해외시장 진출 실적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